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2. 겨울호

167



ISSN 2765-298X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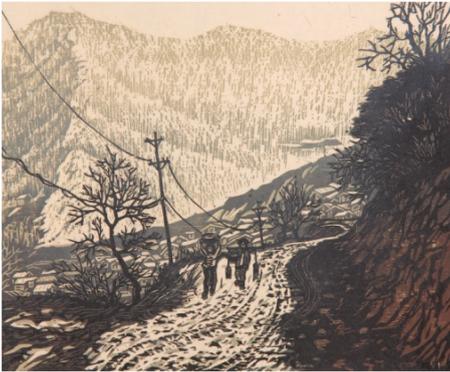
2022년 겨울호 통권 167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김중기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김호민 유비아 이지영(내부) 김현지 윤석현 이지혜 허주영(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카카오톡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세요.



떠내면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지만, 무릇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권리’를 다루면서 참정권, 지방자치, 저항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겨울호에서는 노동권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인지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노동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일을 했는데도 정당한 임금을 못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일을 하러 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노동권, 인권 탄압은 비단 한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생각하며 2022년의 마지막 호인 겨울호를 떠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가 매섭습니다. 2022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내년 봄에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04 **4대항쟁** 부마민주항쟁 43주년 기념 제31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6월민주항쟁 35주년 특집 – 1987년, 뜨거웠던 부산의 항쟁 일지 ⑥, ⑦
- 10 **특집** “안전한 일터는 고용의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_배성민
나란한 삶, 노동자와 예술인 _김기영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_석병수
- 20 **민주공원**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④ – 중구·영도구 두 번째 길 _정다솜
- 22 **모두의 민주주의** 함께라는 감각 _김예선
경계를 가르는 땅, 매숯 _한유석
- 30 **기억에서 기록으로**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억으로 _배은희
민주공원 사료관 아카이브 구축과 그 의미
- 34 **회원과 함께** ‘나’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역사모꼬지 _김도희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 38 **민주사랑방**
- 40 **민주알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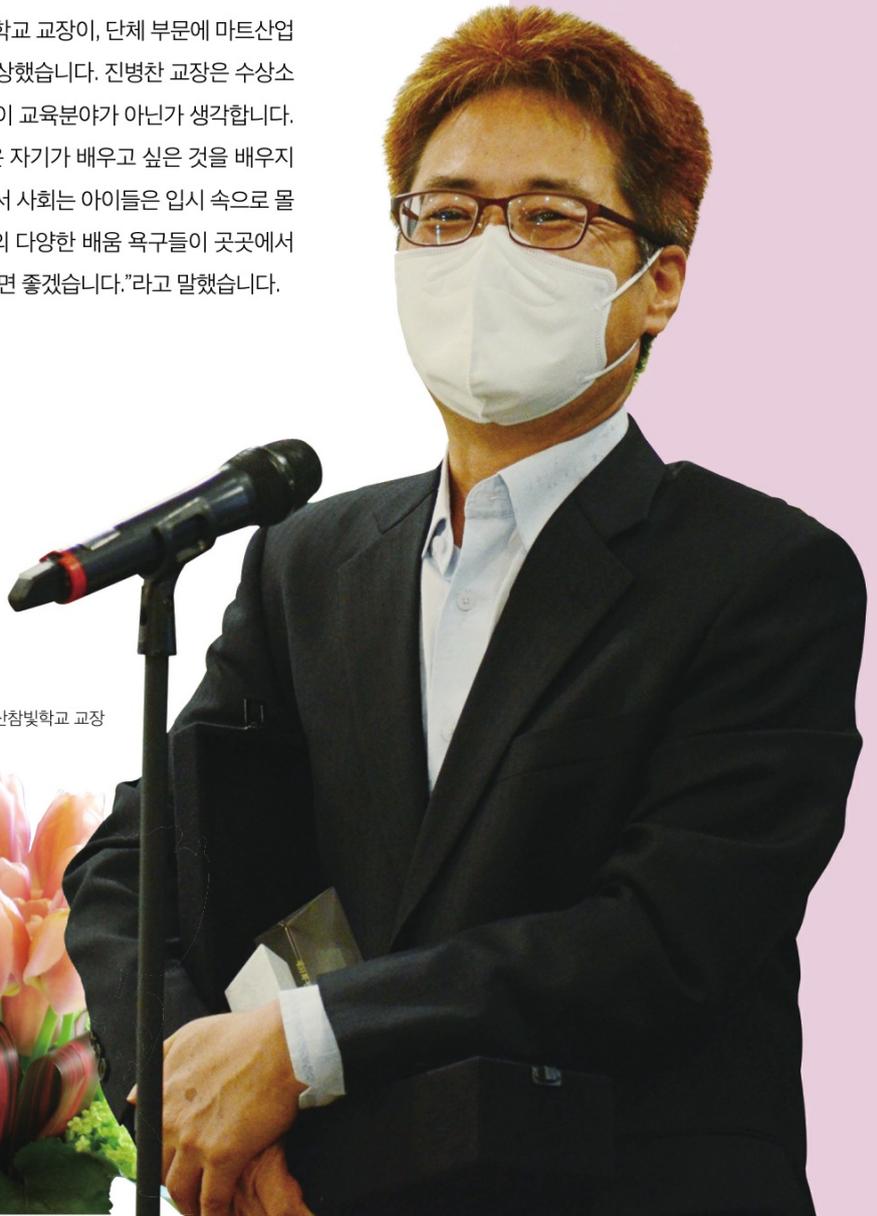


부마민주항쟁 43주년 기념 제31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부마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1992년부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수여하고 있는 민주시민상의 제31회 시상식이 10월 15일(토) 오후 5시 30분 서면 이리스 웨딩앤뷔페에서 열렸습니다.

개인 부문에 진병찬 부산참빛학교 교장이, 단체 부문에 마트산업 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선정되어 수상했습니다. 진병찬 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제일 소외되고 있는 곳이 교육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시와 경쟁 체제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는 아이들은 입시 속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배움 욕구들이 곳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바뀌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부문 수상 진병찬 부산참빛학교 교장



부마민주항쟁 43주년 기념

제31회 민주시민상 시상식

일시: 2022년 10월 15일(토) 17:30

장소: 서면이리스웨딩홀뷔페

주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후원: BNK 금융그룹



단체부문 수상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저희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년 전에 마트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 갑질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시작하여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은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개척해보자,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돈 가진 자들이 자기들 땅에 건물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냐고도 했지만, 그곳은 저희들이 10년간 일귀온 일터, 삶터였습니다. 저희만 아니라 지역 모두의 생존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기자본과 비정규직이 있는 곳에 연대하겠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제31회 민주시민상 시상식을 축하하며 ‘개똥이어린이예술단’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시상식에 앞서 역대 민주시민상 수상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1992년부터 민주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민주시민상을 시상함으로써 민주시민의 표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평등, 통일 생태 등의 가치를 실천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주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31회 민주시민상 수상자와 이행봉(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민주시민상 수상자 간담회



개동어린이예술단의 축하공연

민주시민상 역대 수상자

회차(연도)	성명 / 단체
1회 (1992)	• 권정시
2회 (199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윤부한)
3회 (1994)	• 늘푸른남구시민모임(해산)
4회 (1995)	• 손미희(부산민주청년회 회장)
5회 (1996)	• 이세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6회 (1997)	• 정귀순(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7회 (1998)	• 안하원(부산지역 실업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8회 (1999)	• 이정미(부산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 회장)
9회 (2000)	• 작은이들을생각하는사람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10회 (2001)	• 고창권(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대표)
11회 (2002)	• 강한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12회 (2003)	• 한석우(부산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장)
13회 (2004)	• 부산여성회 • 노호성(민간공동체 푸른마을 사무국장)
14회 (2005)	•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 최수연(우리누리공부방 원장)
15회 (2006)	• 부산지하철매표소해고노동자현장위원회(해산) • 박주미(민주노동당 중앙위원)
16회 (2007)	• 부산청년회(해소) • 김진숙(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17회 (2008)	• 부산생명의전화 • 신태섭(전 동의대학교수)
18회 (2009)	• 부산민중연대 • 최현오(6.15울산본부 상임대표)
19회 (2010)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 김영만(3.15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회차(연도)	성명 / 단체
20회 (2011)	• 청소년희망공동체 숲(민주주의) • 한진중공업 가족대책위원회(인권) • 최보경(간디학교 교사, 평화통일) • 최수영/이환문(함안보 고공농성자, 환경자치)
21회 (2012)	•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민주주의) • 이갑호(쌍용차 창원지회, 인권)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통일) • 정수희(에너지정의행동, 환경자치)
22회 (2013)	• 희망세상(민주주의) •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인권) • 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평화통일)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환경자치)
23회 (2014)	• 부산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 신라대현장위원회 •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24회 (2015)	• 부산YWCA • 한국전쟁전후진주기간인피해살자유족회
25회 (2016)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폐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26회 (2017)	• 김봉대 •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27회 (2018)	•故 윤일성 부산대학교 교수
28회 (2019)	• 감만동8부두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남구대책위
29회 (2020)	• 김평수 • 부산여성단체연합
30회 (2021)	• 박영순 •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1987

1987년, 뜨거웠던 부산의 항쟁 일지

- 6월민주항쟁 35주년 특집

⑥-1 평화대행진

드디어 6월 26일, 6월항쟁의 절정기를 이루는 중요한 날이 밝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18일에 이어 전국적으로 최고의 인파가 시위에 참가하여 항쟁의 주역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 통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수노동자들은 시위에 힘을 보탰습니다.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노선을 바꾸어 시위대를 막아주는 바리케이드를 형성해주고 버스로만 막기 힘들자 근처를 지나던 택시들도 속속 몰려와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공사장의 트레일러까지 지원을 해주어 경찰들이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독재타도’의 함성은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⑥-2 평화혁명의 승리

‘이제는 정말 이긴다. 모든 민중이 하나가 되었다.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 폭력이 끊이지 않는 투쟁이 어느덧 6월 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월 29일 아침,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이른바 6.29선언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개정된 헌법에 의거, 연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2.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3. 김대중 씨를 사면하여 복권시키고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 사범을 대부분 석방한다.
4.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킨다.
5. 언론자유를 창달한다.
6.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대학을 자율화한다.
7.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8.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민중은 오랜 투쟁의 결과를 승리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거둬들이는 군투입의 위협에 맞서 항복선언을 받아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⑦ 7, 8, 9 노동자대투쟁

6월민주항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했던 노동자들은 6.29선언 이후 노동현장에서 투쟁을 적극 주도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의 임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으며 장시간의 근로시

간은 전국 1위였습니다. 17세 이하 연소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의 작업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었고 산재발생률 또한 전국 1위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7, 8, 9월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동자대투쟁은 8월 말을 고비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에 새로이 투쟁을 시작하는 업체도 있었으나 9월 말에는 대부분의 투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실패'라고 단정하기에는 7, 8, 9 노동자대투쟁은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 업종에 걸친 최대 규모의 투쟁이며 노동계급의 역량을 현실화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제조업, 운수노동자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호텔, 부두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고 노동자들은 생존권 투쟁을 넘어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인상, 복지시설 확충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준수, 어용노조퇴진을 외쳤습니다.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6월민주항쟁 35주년 특집 <1987년, 뜨거웠던 부산의 항쟁 일지>를 마칩니다. 지면을 통해 소개한 모든 사료와 글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지역 유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의 『6월항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위에서부터

- ▲ 6월 26일 많은 부산시민이 함께한 평화대행진
- ▲ 6월 27일과 28일, 가톨릭센터에 모인 시민들이 즉석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는 국본 상임위원인 노무현 변호사가 맡았다.
- ▲ 6.29선언 발표 이후 기쁨에 찬 시민들
- ◀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



“안전한 일터는 고용의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법 2조를 개정으로 풀어가자!

배성민 |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

2021년 1월 신라대학교는 학내 청소노동자 51명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청소노동자 대신 교직원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청소함으로써 학교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 재정 위기가 있었다. 2월 23일 청소노동자는 해고에 맞서 대학 본부를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시작했다. 2012년(9일)과 2014년(79일)에 이은 세 번째 농성 투쟁이었다. 세 번째 농성은 114일간 이어졌고 6월 16일 해고 철회와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2012년 신라대 청소노동자의 첫 농성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예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었다. 노조 가입 전까지 교수 사무실 이삿짐 운반, 잔디밭 풀매기, 학생 축제 세팅 및 뒷정리 등 청소 이외 업무를 학교가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교수 개인 숙소 청소도 청소노동자 담당이었다. 노조를 만들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관리자는 “학교에서 빵과 우유를 줬잖아요”라며 반발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 임금은 당시 100만원도(95만 7,220원) 되지 않았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임금을 제공했다. 그 뒤로 9년의 시간이 흐른 2021년 임금은 최저임금 182만 2,480원에 식대, 교통비 등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다행히 2012년 농성은 9일 만에 끝이 났다. 용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상여금, 교통비 등 임금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학교 청소 이외의 잡무는 일체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장조합원들은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예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2년 신라대 청소노동자의 투쟁은 시작에 불과했다.

2014년 학교는 청소 용역 입찰 공고를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직접고용은 논의에만 그치고 용역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용역 업체는 2013년 10월 이미 기숙사청소노동자에 한해 학교와 사업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용역 업체는 악명 높았다. 기숙사 청소노동자의 방학 중 단축 근무에 대해 임금 삭감, 설 상여금 미지급 등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했다. 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며 항의했다. 그런데도 2월 학교는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전체 청소노동자 사업 계약을 용역 업체와 체결했다. 심지어 용역 업체는 고용과 임단협 승계를 거부하고 개별 채용을 통보하며 조합원에게 입사 서류와 면접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름없었다.

2월 24일 청소노동자는 용역 업체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이사장실 앞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용역 업체는 근로조건 변경을 노조에 협상 조건으로 제안했다. 상여금 반납, 연차휴가 및 하계휴가 반납, 업무 범위 확대였다. 2012년 청소노동자들은 농성 투쟁으로 어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를 쟁취



▲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교내 행진 _필자

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용역 업체의 이 제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2월 27일 노조가 제안을 거부하자, 용역 업체는 조합원 40명에게 '계약 만료'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용역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후퇴를 청소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월 28일 현장 간부 9명과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이 신라대 사범대 옥상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 30명은 이사장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며 사범대 고공농성단을 지원했다.

79일 동안의 이사장실과 사범대 고공 농성 끝에 5월 13일 신라대 청소노동자는 승리했다. 2014년 5월 13일 새천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총장이 학교에 나타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새천년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총장과 협약서를 작성했다. 핵심 내용은 “기존 용역 업체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 승계한다”, “기존 업체에서 지급해 온 총액 임금(상여금 포함) 및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였다. 그리고 2014년 5월 16일 부산일반노조는 용역 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정년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약속받았다. 2014년 투쟁의 핵심 구호는 ‘직접고용 쟁취’였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 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를 겪고 근로조건이 저하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합의서는 용역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보장받기로 했지만, 직접고용은 쟁취하지 못했다. 2014년 합의 이후 7년간 잠잠하다가 2021년 다시 해고 바람이 불었다. 2021년 신임 총장은 2014년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서 청소노동자 전원 해고를 강행했다.

2021년 농성 투쟁은 지금까지 신라대 농성 중 가장 길었다. 114일 동안 학교에서 먹고 자며 조합원들이 힘겹게 투쟁한 결과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이번 투쟁은 더 이상 간접고용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적당한 선에 합의할 수 없었다. 직접고용을 쟁취해서 해고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몸짓패 ‘선언’의 <진짜 사장이 나와라>에 “진짜 사장이 나와라 /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냐 / 진짜 사장이 나와라 / 용역하청마지사장 다 걷어치우고 나와라”라는 가사가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

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신라대 농성장에 몸짓패 선언이 와서 공연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이 우리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라며 자주 따라 불렀다. 노래 가사처럼 신라대 청소노동자는 진짜 사장(원청)인 학교 총장이 직접 교섭에 나오게 하려고 10년간 투쟁했다. 2014년 합의서에는 노조위원장 이름이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2021년 합의서에는 총장과 노조위원장 이름이 동시에 들어갔고 최종 조인식에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이 직접 참석했다. 신라대 청소노동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사실을 투쟁으로 증명했다.



최근 민주노총과 노동단체에서 노조법 2조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노조법은 줄인 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노조법 2조에서 개정하고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하라는 요구이다. 현재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에 국한하여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청 문제에 대해 원청이 책임져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신라대 또한 청소노동을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었다. 하지만 용역사장은 학교와 이야기하지 않으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농성 투쟁 _비주류사진관 이인우
▲ 신라대학교 청소노동자 농성 투쟁 _비주류사진관 조종완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노동조합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신라대 청소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 고용의 안전을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하다.

114일간 농성 투쟁이 끝나고 신라대 청소노동자에게 10년간 투쟁하며 포기하고 싶지 않았냐고 물었다.

“40대 중반 경력도 없이 들어온 직장인데 이제 60세가 다 되어서 중간에 잘리면 어디 갈 때도 없어요. 여기서 정년퇴직해야 우리 집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고라는 말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죠.”

안전한 일터는 육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공간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엄진령, 우리가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질라라비(2020.05.12.)

나란한 삶, 노동자와 예술인

김기영 |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예술이 사고 팔리는 것에 집중되는 것, 노동자가 한낱 부품 취급되며 내버려지는 것. 나는 가끔 두 상황을 나란히 두고 바라보곤 한다. 양심에 찢려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동쪽 나라의 품앗이가 남아있어 '그래도 어떻게 돈이 사람 위에 있을 수 있어.'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턴 부끄럽지 않게 '돈이 최고.'를 외치는 사회로 향해간다. 예술인도(또는 예술노동자) 이 땅의 모든 노동자도 이러한 '계급적 질문' 앞에 선 요즘이 아닌가 싶다.

노동자와 예술인은 동지가 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의 싸움이 잦다. '투쟁!' '단결!'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싸움의 대상이다. 노동자들이 싸우는 대상은 자본가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이윤을 독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이다. 정치파업이 문제라는



말이 세상에 쉽게 떠도는데 나는 오히려 소득만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투쟁이 더 고결한 것이지 않은가 싶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깊게 바라보면 말로 다 설명 못할 무엇인가가 있는데 먼저 자기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들 한다. 어딘가 고장 나 있고 불평등한 현실에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나는 무얼 할 수 있는가 찾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 파편화된 개인은 얼마나 초라한가. 결국, 옆에 함께하는 동료와 조직적인 단결, 그것으로 귀결된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계급의식 속에 함께 성장해가고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의리와 인간미까지, 나의 조직 '신진문화예술행동 홍(이하 홍)'은 큰 대의라기보단 그런 사회적 인간의 성장과 분투에 공감하며 투쟁 승리를 바라게 되어갔다. 처음 현장을 방문하면 분위기가 어떨까. 너나 먼저 할 것 없이 굉장히 어색하다. 복장도, 풍김새도 어찌면 발걸음마저 서로 다른 예술인들을 바라보며 노동자 대오의 눈에는 '뭐하는 사람들이지?' 궁금증이 다분하다. 약간의 경계와 함께, 우리는 보통 노조 간부님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 (조금 TMI을 하자면) 옆에 아홉은 우리 조직의 이름을 틀리게 호명하신다. 아주 틀리는 건 아니고 '신진문화...예..술단 홍'으로 가장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다. 우리 조직 이름이 좀 어렵고 길기는 한가보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딱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를 깨는 일이다. 뭐 사실 팔뚝질과 함께 "동지들 투쟁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하면 반쯤 녹아내리시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만큼 누군가의 연대를 필요로 했고 웃으며 투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스스로 단단하지만 절대 고립되지 않으려 애쓰는 노동자들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은 쿵쿵 울리는 박자와 쏟아지는 멜로디 사이로 울분도 토해보고 소리도 질러보며 함께하는 느낌을 강하게 느껴보는 시간. 현재 홍이 현장에서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일들이다. 무대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내려오면 반짝이는 눈으로 다가와 "나도 노래 좋아하는데 다음엔 나도 노래할 수 없습니까?" 하는 멋진 사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한 번 두 번 관계가 이어지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곤 한다.



예술인을 노동자라 부를 수 있을까?

'홍은 왜 노동자 문제에 집중하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준비된 답변으로 '우리가 노동자니까요.'라고 해왔는데, 예술인은 노동자가 맞을까?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무에서 유를 생산해내는 점에서 노동이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뚜렷한 계약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뚜렷한 계급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도 하다. 더군다나 개인적이고 자유로움에만 치중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건 '사람 by 사람'이니까. 홍은 '예술인 또한 예술노동자이다.'라는 접근으로 활동을 넓히고 스피커를 키워온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로서의 계급인식을 하고 연대투쟁에 나서며 예술인의 창작활동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 급진(?)적으로는 우리가 노동문화를 주도해서 노동자 대오가 우리가 창작한 문화예술을 소비해주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회변혁과정과 함께 노

동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우리나라', '꽃다지' 같은 문예 패의 사례들도 있었으나.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해가며 많은 부분 실패도 있었지만 '밴드 흥'의 전국적 활동에 비춰본다면 뚜렷한 성과를 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노동자인가? 혹은 예술은 사회보다 반걸음 앞서는 전위의 산물이며 반항과 혁명의 토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노동자이기만을 바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어떻게 내 사업장에 만 갇히지 않는 노동자로 될 것이냐는 질문이 절로 따라오는데 변혁적 노동자조직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여전히 고민하고 배워나간다.

예술 행동은 투쟁현장에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

예술행동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자. 예술이 뭐가요? 가장 큰 범위로 설명할 때는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표현된 모든 행위이다. 그럼 모두가 예술을 할 수 있는 거네? 맞다. 그럼 조금만 좁혀보자. 안타깝게도 불평등하고 어딘가 고장 난 사회에 사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런 활동에서 창의성을 빼놓을 수 있을까? 예술 행동의 소명은 거기에 있다. 방구석이나 무대를 벗어나 현장과 광장,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공간특성으로도 예술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술 행동의 핵심에는 싸우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감정을 불러일으켜 표현을 폭넓게 하고자 함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현장에서의 예술 행동은 어떤 수준에 있을까. 무대의 짧은 시간을 부여받아 선전선동을 해내는 것. 매우 중요한 행위이지만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노동자들이 예술적이게 표현할 수 없을까? 기교적으로 뛰어나다는 것 말고. 정말 마음이 하나 되며 "와 예술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예술. 예술인들은 창작의 토대를 현장에서 찾을 수 없을까? 사회의 진보에 이바지하며 창작욕구가 샘솟듯 뿜어 나오는 창의적 삶.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서로가 노력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얼마 전 한 노동조직에서 문화예술부문을 맡은 선배와 이런저런 고민을 나눴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계도 함께 실감했지만,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며 뭔가 모를 희망도 느낄 수 있었다. 적어도 노동자들의 싸움에 예술은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 예술인들도 자기가 가진 진보적 사명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단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양극화는 심하고 무기력함은 깊게 느끼게끔 설계된 분야가 '문화예술산업'인지라 굴레를 끊고 나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앞으로 고민은 계속될 것 같다. 예술인조직은 현장에서 그저 행사 팀이지 않기 위해, 노동조직은 문화예술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정말 예술이었다.'라는 한판을 벌일 날이 다가옴을 느낀다. 더 좋은 세상이 옴을 예술인의 특유의 낙관성으로 기다려본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석병수 |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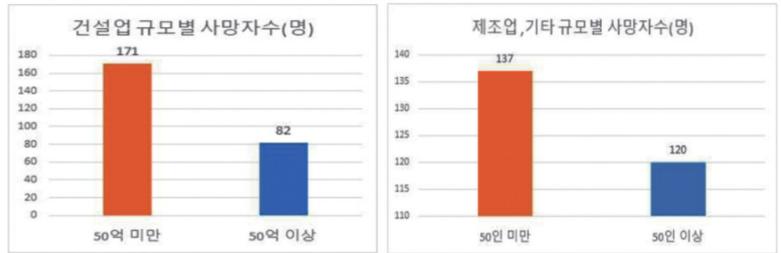
왜 산재 사망사고는 늘었을까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1개월이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의 안전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재해는 줄었을까. 그리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 강력하게 처벌되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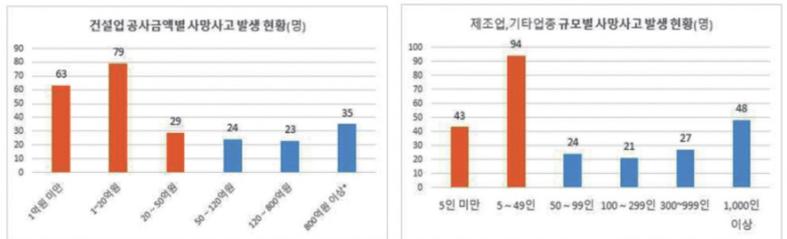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5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명이 증가했다. 올해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1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한 해 동안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비하면 비슷한 추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어도 유의미한 감소세는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어도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나는 올해 중대재해로 구속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중대재해로 기소된 사례조차 몇 되지 않는다.

22년 3분기 규모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



22년 3분기 규모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세부)



2022년 3분기 규모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_부산노동권익센터 발간 노동이슈읽기 제53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을 뺀다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30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전면 정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처벌' 위주의 규제를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 기업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됐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산재사망 추모_부산노동권익센터 발간 노동이슈읽기 제26호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 시행 초기부터 개정을 언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를 했다. 정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는 중대재해 10건 가운데 1건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모범사용자'여야 할 공공부문이 노동자 안전 확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달 8일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18건으로 18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183건(202명 사망)이다. 공공부문 발생비중이 9.8%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다시 생각해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제출한 로드맵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려가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첫 번째 전략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부터 이미 도입된 제도다. 전면 실시가 법으로 강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를 다시 되살펴 보아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1년에 한 번 씩 실시해야 하는 거주장스러운 서류작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현장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위험성 평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들어보지 못한 제도다.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참여하에 노사가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체계를 전환한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의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재 사망 기업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적도 없이 '처벌' 위주의 규제로서는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에 책임을 회피하기 재계의 검은(?) 속내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부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업장 적어

부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대부분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기준 39만 8천 개이다. 40만 개인 전체 사업장의 99%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의 87%인 35만여 개에 달해, 2024년 이후에도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부산지역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유예된 상태다.

올해 3월 16일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딩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지역 첫 산업재해 사망사고였다. 이 사고는 재해에 취약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해당 공사 현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다. 여기에 사망노동자는 50세 이상으로 노동현장에서 준고령자로 분류되는 나이이다. 또 하청노동자로서 일용직으로 고용돼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노동자의 끼임사고를 계기로 SPC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계열사인 SPL이 뒤늦게 트라우마를 호소하던 작업자들에게 휴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열린 '제빵공장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년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 10. 17 / 연합뉴스
- 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_부산노동권익센터 발간 노동이슈읽기 제51호

3가지 요소의 취약성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 가운데 80.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0세 이상 준고령 노동자 비율은 72.8%나 차지했고,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율도 70.8%를 차지했다. 올해도 작년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올해 9월까지 부산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23명 노동자 중 17명이 50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인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노사관계 패러다임부터 전환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리를 잡으려면 '처벌'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강조한 '현장 노동자의 의견 청취', '노동자의 참여', '노사 자율',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모든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화물 노동자를 북핵 위험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참여, 노사자율이 과연 가능할까. 엄청난 이익을 벌이고도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인 대기업이 변하지 않고서는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전환'은 공허한 소리다. 대표적인 사례가 SPC(파리바게뜨 계열사)에서 지난 10월 일어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다.

노동법도 바뀌어야 한다. 하청노동자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스스로 몸을 가두는 철장 농성에 재벌기업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에게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먼저 노동법 2, 3조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가 자기 의견을 낼 수 당당히 낼 수 없으면, 안전할 수도 없다.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노조 할 권리, 안전할 권리

노동시장 분절과 산업재해 취약성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사회 노동시장은 1,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 1차 노동시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 2차 노동시장일수록 저임금에 고용유연화가 심각하다. 앞에서 산업재해 3가지 취약성에 관해서 지적했듯이 산업재해 역시 2차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사업장, 고령노동자일수록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고용의 불안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게끔 만든다. 잦은 해고는 노동자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고용에 목매달게 한다.

특히 노동관계 다변화에 따라 기존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10t 트럭 기사 이 아무개 씨는 월 평균 오전 3시 42분에 출근해 저녁 7시 51분 퇴근한다. 하루 16시간씩 길 위에서 보내면서 월 평균 1400만원을 벌지만 차량할부비용(265만원), 기름값(700만원), 소모품비용(100만원) 등을 빼면 300만원 정도만 남는다.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제외된다. 부산지역 사업장은 8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대다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려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없애는 것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조로 더 많이 가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야 한다. 노동조합으로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노사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당장 노동조합이 힘들다면 다양한 자조모임으로 모이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이러한 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에 투자하는 게 된다.

중소영세 사업장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해서 역량이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노동안전보건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 사업장이 안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야 한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지역 사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 노동계, 시민사회와 그리고 부산시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해 노동안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

부산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④ - 중구 · 영도구 두 번째 길 부산 원도심 항쟁의 길

정다솜 | 민주공원 문화예술교육 · 전시



◀ 사진 위에서부터 롯데백화점 광복점(옛 부산시청 터), 부마길 표석, 구두방골목, BIFF광장

롯데백화점 광복점(옛 부산시청 터)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

민주주의를 열망한 시민들의 염원이 녹아있는 부산의 심장 중구. 오늘날 거대한 백화점이 있는 이 자리엔 과거 사람들로 북적이던 부산시청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에 저항한 4·19 혁명부터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을 거쳐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결정적 순간마다 부산시청 앞에서는 시민들의 합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시민들의 우렁찬 합성 소리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부마길 표석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로 62

화려한 상점들로 가득한 광복로는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저항한 부산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항쟁을 벌인 곳입니다. 광복로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유신독재정권에 항거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마산으로 이어져 부산과 마산을 아우르는 거대한 항쟁으로 발전하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유신독재체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광복로 한가운데 위치한 이 부마길 표석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거친 파도처럼 생긴 표석의 외형은 항구도시 부산을 상징합니다.

구뚝방 골목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3가 16

좁은 길을 따라 수많은 가게들이 이어진 이 골목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제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전문점들이 모여 있던 부산 최대의 구뚝방 골목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대는 이곳의 가게들을 방패 삼아 경찰이 쫓아오면 가게 안으로 몸을 숨기고 경찰이 물러가면 다시 길가로 나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항쟁 당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부마민주항쟁이 유신독재를 쓰러뜨린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역사 속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BIFF광장

▶ 부산광역시 중구 비프광장로 36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BIFF광장은 오랫동안 부산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부산 최대의 변화가였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그날, 시위를 처음 일으킨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이곳으로 달려와 시민들 앞에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유신독재에 맞선 학생들의 용기를 본 시민들은 열렬한 박수로 시위대를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위대에는 상인, 노동자, 상점 종업원, 실업자, 재수생,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너도나도 합류하였고 저녁이 될 무렵에는 지금의 BIFF광장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광장을 메운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기나긴 유신독재체제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 네이버 지도 참조

함께라는 감각

- 2022 전국시민사회단체활동가 아카데미 국내외 연수를 다녀와서
(10. 1.~10. 광주 일원, 태국 방콕·매솟 지역)

김예선 | 편집장, 홍보



10.4 기념식. 기념조형물 주위에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 있다.

어서 와! 태국은 처음이지?

태국을 가본 적이 없어 어떤 곳인지 모호했다. 다행히 국내연수에서 엄은희, 한유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 현황은 물론 태국 내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난민 관련 문제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의 사전 강의는 태국 현지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짧지 않은 비행을 마치고 방콕에 도착해 느낀 것은 더위와 엄청난 습도였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도로에 차가 많은 것도 신기했다. 국내연수 강의에서 들은 민주주의 위기나 왕정 독재와 군부 쿠데타, 난민 문제 등은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다. 밤이 지나고 시작될 본격적인 일정이 기대되

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특히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태국 인권변호사 단체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의 아논 남파 변호사, 매 타오 클리닉 Mae Tao Clinic의 신시아 마웅 여사와의 만남이 기대됐다.

이름 없는 이름, 10.4

하룻밤 자고 일어난 아침, 더위를 가로질러 바빠 움직여 탐마삿 대학으로 향했다. 10.4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네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그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듯이, 4·3이 여태껏 어떤 이름도 가지지 못했듯이, 10.4는 항쟁도 민주화운동도 사태도 아닌 '10.4' 자체로 불리고 있었다. 이름 없는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며 기억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서서 기념식을 열고 추모사를 읽고 노래하고 역사를 알리고 있었다.

탐마삿 대학에서 나와 10.4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지근거리에 있는 왕궁을 보았다. 왕궁 앞 넓은 교차



10.4박물관. 사진만 보면 언제인지, 어떤 사건인지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에 왕과 왕비, 왕의 배우자 사진이 황금색으로 치장된 채 놓인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46년 전 왕정과 군부 독재에 반대하며 일어난 이들이 바로 탐파삿 대학, 저곳에 있었는데…… 현재의 정권도 왕정도 10.4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은 후 본 커다란 황금색 장식 사진판이 너무나도 굳건하고 고고해보였다.

10.4박물관에서는 장소만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국가폭력의 참혹함을 보았다. 사진만 보면 이것이 46년 전 태국의 모습인지, 불과 얼마 전 태국의 모습인지, 또 부마민주항쟁 때 사진인지 5·18 민주화운동 때의 사진인지 알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폭력, 특히나 반민주적 국가폭력의 잔인함은 차마 오래 바라보고 있기 힘들 정도였다.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마주보고 선 나의 감정은 요동치고 있었다. 이어서 본 5·18사진전 역시 몇 번이고 본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감각으로 보게 되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후후에 태국 인권변호사 단체인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의 변호사, 활동가들과 만났다. 당일에도 아는 남과 변호사는 공판이 있어 연락으로만 안부를 전하고 만나지는 못했다. 시니어 변호사들은 태국 헌법 112와 119인 ‘왕실모독죄’를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태국 일정을 모두 함께한 갈라롱껀 대학 판딧 교수님의 부연 설명에 경악하기도 했다.

특히 놀란 부분은 왕실모독죄로 기소되면 형사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전 시도 아니고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시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는 말인가.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문했고 한 변호사가 답을 해주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라고. 군부 쿠데타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내려진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왕실모독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다. 태국의 왕정은 입헌군주제라는 이름으로 사법 체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

매сут, 평온함 속 긴장감

출퇴근길이 부산의 그 유명한 산복도보다 보니 웬만한 굽이굽이 길이 두렵지 않다. 방콕에서 매сут까지 차량으로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매сут 지역은 산악지대라 길이 험할 것이라 들었어도 역시 겁먹지 않았다. 실로 매сут 지역에 가까워지자 차는 산속으로 들어갔고 더 높이 올라가고 고개 넘기를 반복했다. 고도가 높아져 한동안 귀가 막혀 고생도 했다.

그렇게 도착한 매 타오 크리닉의 차분한 분위기가 더 신기했다. 신시아 마웅 여사의 설명으로 매 타오 크리닉의 역사와 활동을 들었다. 신시아 여사는 처음 크리닉을 열었을 때 3개월 정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지만 3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현재 크리닉은 단순한 의료소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었다. 신시아 여사의 친절한 안내로 도서관, 소아과병동,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느 담장 앞에 섰다. 그곳은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 지역이었고 담장 너머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얀마가 있다는 것이다. 어둑해질 무렵, 정성으로 가꾼 ‘작은 마을’은 고요했고 풍경은 아름다웠다. 동시에 긴장감과 불안감이 느껴졌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답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얀마와 접경 지역이라

는 것이 새삼 몸으로 느껴졌다.

정성에 담긴 진심

저녁으로 NUCC(Myanmar's National Unity Consultative Council)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다. 미얀마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태국에 있는 내내 음식을 너무 잘 먹었지만 특히나 이날의 식사는 뜻깊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준비한 장미꽃 한 송이를 받아들고서 활동가들의 이야기와 음악 연주를 들었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입을 위한 행진곡'. 이어 미얀마에서 부르는 민중가요도 들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밀크티를 한 잔씩 받아들었다. 따뜻한 밀크티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속에 들이켰다.

부정할 수 없는 민중의 힘

AAPP(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를 찾아 미얀마에 더 가까이 갔다. 국경 너머의 미얀마를 보기 위해 내 키보다 낮은 문을 통해 전시장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8888항쟁부터 현재까지 많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억압의 역사가 함께 놓여 있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감옥의 모형이 놓여 있었는데 전형적인 판옵티콘 형태였다.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감옥의 형태. 이러한 형태의 감옥이 미얀마의 수십 개가 있음을 지도로 보여주었다.

전시장 안에는 실제 감옥의 방처럼 만든 공간이 있었다.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실에도 독방을 재현한 공간이 있어 익숙하게(?) 감옥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공원 독방보다는 넓었지만 방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재소자가 방에 있을 때에도 편히 쉬지 못하도록 여러 자세를 취하게 해 고문을 한다고 한다.

2021년 9월,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이 한창일 때, 소식지 편집장으로서 이 내용을 소식지에 다루기로 결정했다. 부산의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교수님께 원고를 청탁하고, 나는 부산에 거주하는 미얀마 활동가,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하면서 뉴스에서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모두 버마족



태국 왕궁 앞.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과 왕비, 왕의 배우자(Queen Consort) 사진이 태국 곳곳에 있다.



매 타오 크리닉에서 바라본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소수 민족, 특히나 로힝야족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고 민주주의를 위해 민족 간 갈등관계를 넘어 함께하려 노력한다고.

AAPP의 활동가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 시간이 부족해 통역도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미얀마 사태의 이유로 미국

과 중국 간의 갈등을 듣고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고, 그는 국가 간의 힘 싸움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중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미얀마 분들을 만나 인터뷰할 때 느낀 민중의 힘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다.

힘들고 지칠 땐 서로를 떠올리며

태국 NGO단체와의 만남 중 마지막으로 두 단체를 만났다. 특히 여성단체 활동가와 만나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폭력은 아래로 향한다고 했던가. 폭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여성, 소수자를 향한 폭력이 나타난다. 국경 지대에서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가족들 눈앞에서 강간을 한다는 말을 듣고 울컥,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을 삼키며 한국에도 많은 젠더 이슈가 있고 여성, 소수자를 향한 폭력이 존재하지만 미투 운동 같은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어디서든 함께 싸우고 있으니 힘들고 지칠 때는 서로를 생각하자고 말했다.

함께라는 감각

활동가를 업으로 삼은 지 만 4년이 지났다. 3년을 넘겼을 때부터 고민이 많이 들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다고 한들 세상이 바뀔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어떤 길이로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 고민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렇게 나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체력도 좋아야 하겠지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2022 전국시민사회단체활동가 아카데미를 통해 다른 활동가들도 만나고 태국도 다녀왔다. 빠듯한 일정을 촘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생각하기보다 느낀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잔인한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 슬픔, 오랜 시간 활동한 이들에 대한 존경,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공감. 그렇

게 감각으로 함께라는 것을 체화했다. 활동가로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49일이 더 지났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SNS를 하고 있던 중 하나, 둘 게시물에 올라왔고 곧이어 뉴스에 속보가 났다. 아찔했다.

한 며칠을 눈물만 흘렸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상실과 애도, 분노와 죄책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도 깊은 감각이었다. 그렇다. 우리는 함께하기에 함께임을 감각하기도 하지만 함께이지 못할 때 '함께'를 더욱 감각하기도 한다.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지척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산 자의 몫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청소년들이 이태원에 놀러가지 않았을까? 유품이 줄 맞춰 놓여 있는 실내체육관 모습을 TV에서 보고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생사를 달리 했더니, 강남역 살인사건이 또 떠올랐다. 그렇게 많은 죽음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아 있다. 이 감각이 너무나 힘들지만 무너지고 싶지는 않다. 계속, 함께이길 바란다. 🇰🇷



경계를 가르는 땅, 매솟

한유석 |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필자소개 : 문화인류학자, 태국 지역 연구자, 태국 내 미얀마 출신 이주민과 난민, 무국적자, 소수종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민족주의, 이주, 시민권, 종족성, 국가폭력과 학살 등이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도시 중 가장 주목되는 도시는 매솟(Mae Sot)이다. 한국에서는 맬라 난민촌(Mae La refugee camp) 인근 거점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도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 국경도시 매솟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

경계, 매솟

매솟은 미얀마 카렌주(Karen state)의 국경도시 미야와디(Myawaddy)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태국 북서부의 국경도시다. 태국과 미얀마는 육로 해로 포함 약 2,115km의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국경만 큼이나 양국은 희비극이 교차하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 모두 대륙 동남아의 강국이었던 만큼 지역 내 주도권 장악과 영토 확장을 위해 상대 국가를 자주 침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역사적 양속 관계가 형성되었다.

매솟은 이 양속 국가들의 중심지인 양곤과 방콕의 최중간에 위치해 있다. 타논 통치이 산맥과 도나 산맥 사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분지인 매솟은 양곤과 방콕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기에 일찍부터 국경 무역이 발전하였으며 근대적 국경이 획정되면서 양국 간 경계로 자리 잡았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후 매솟은 태국-미얀마 간 이해관계와 국경지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잡한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지형이 형성되었다. 버마족과 카렌족의 이주, 난민촌 형성, 난민과 무국적자, 이주민을 위한 국제기구 및 INGO의 이전, 방콕 인근의 제조업 공장, 특히 봉제공장의 매솟 이전, 마약과 인신 매매 및 블랙마켓 형성 등으로 인한 합법-비합법, 공식-비공식의 공존 등 매솟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처럼 매솟은 복잡다단함을 품고 있는 경계다. 이 복잡다단한 경계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먼저 매솟은 양국 간 지리적 경계다. 기존 국가의 레짐과 사뭇 다른 경계지역의 특수한 예외장치들이 존재하며, 이 예외장치와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의 레짐과 이주민 거버넌스가 행정, 경제, 교육, 국제원조 등 각각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때론 공식적으로, 때론 비공식적으로 합법과 비합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면서...

둘째, 국경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매솟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이 흐른다. 이 사람 간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재현된다. 매솟 내 거주등록된 태국인의 숫자는 약 11만 명이다. 그러나 행정 구역상 태국 영토인 매솟에 태국인보다 더 많은 수의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공식적으로 약 2배에 달

Refugee Camp Population: October 2022



Temporary Shelters	TBC Verified Caseload ¹			TBC Assisted Population ²	MOI/ UNHCR Verified Population ³
	Female	Male	Total	Total	Total
MAE HONG SON					
Ban Mai Nai Soi	3,812	3,776	7,588	7,409	8,083
Ban Mae Surin	1,126	1,158	2,284	2,263	1,907
Mae La Oon	4,450	4,202	8,652	8,536	8,941
Mae Ra Ma Laung	4,784	4,526	9,310	9,086	9,828
Subtotal:	14,172	13,662	27,834	27,294	28,759
TAK					
Mae La	15,371	14,069	29,440	28,566	34,129
Umpiem Mai	4,103	3,994	8,097	7,928	10,620
Nu Po	3,935	3,610	7,545	7,454	9,376
Subtotal:	23,409	21,673	45,082	43,948	54,125
KANCHANABURI					
Ban Don Yang	1,183	1,130	2,313	2,302	2,437
RATCHABURI					
Tham Hin	2,527	2,311	4,838	4,817	5,719
Total Refugees	41,291	38,776	80,067	78,361	91,040

Refugees by Ethnicity

Karen	81.0%
Karenni	9.50%
Burman	3.40%
Mon	0.50%
Other	5.60%

Refugees by Age Groups

New Born < 6 months	0.6%
6 months < 5 years	9.2%
5 years < 18 years	33.9%
>= 18 years	56.2%

Notes

1. The verified caseload includes all persons, registered or not, confirmed living in camp & eligible for rations.
2. The TBC Assisted Population i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who collected rations during the previous month. Rations are only provided to those who are physically present at distributions.
3. The Royal Thai Government and UNHCR conducted a verification exercise of registered and unregistered refugees from January to April 2015. This is updated on a monthly basis.



와 경계만들기가 현재진행형으로 작동중이다.

비주류 타자의 유입

매솓에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 공식 국경 관문이 있다. 그러나 강 하나를 사이로 영토가 나뉘는 이 지역의 속성 상 여러 비공식 루트를 통해 비교적 쉽게 넘나들 수 있는 다공적(porous)·비공식적 국경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는 공간을 넘나드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의 레짐에 일정 정도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의 방향이 대체로 일방향적(미얀마에서 태국으로)이라는 점이며, 이들이 태국과 미얀마라는 두 국민국가의 사법권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국경도시 매솓이 태국과 미얀마, 더불어 국제사회의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것은 1980년대이다. 매솓의 종족 지형의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1984년에, 다른 하나는 1988년에 발생했다. 먼저 1984년에는 카렌족 1만여 명이 매솓으로 이전했다가 난민이 된

하는 20만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면 40만 이상의 미얀마 출신 인구가 거주한다. 태국 인이나, 미얀마인이나, 즉 국적에 의한 단순 구분보다 중요한 건 종족, 제1언어, 신분증 유무와 종류에 따른 위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로 태국인(타이족)은 고용주, 미얀마 출신 이주민인 버마족과 카렌족은 피고용인이라는 종족과 계급의 위계가 등치 관계를 이루는데 이는 각 개인이 소유한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 구분된다. 이처럼 주류 종족과 이주민 간 위계에 따른 구별짓기

채 표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 이래로 카렌족은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버마족이 중심이 된 미얀마 연방 정부와 대립해 왔다. 이로 인해 버마군과 카렌군 사이에 크고 작은 내전이 장기 지속되어 왔다. 내전의 양상은 단순한 패전의 반복이었다. 마을이 내전에 휩싸이면 카렌족은 국경을 넘어 매솓과 인근 지역(태국 영토)으로 대피한다. 이후 내전이 잠잠해지면 다시 국경을 넘어 자신들의 마을로 되돌아간다. 이는 보통 건기(내전 발생 및 태국으로

난민 캠프 인구 통계

도피)와 우기(휴전 및 카렌주로 복귀)의 패턴과 일치했다. 그러나 1984년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휴전기인 우기에 버마군이 철수하지 않고 카렌주를 계속 점령한 것이다. 이에 매솟으로 피난 온 약 1만여 명의 카렌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난민이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1988년 소위 '88혁명'이라 불리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다. 학생 운동 세력을 포함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세력의 상당수는 군부의 탄압에 떠밀려 국경을 넘어 매솟으로 들어왔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난민촌이 매솟과 인근 지역에 형성되었는데, 현재는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에 총 9개의 UN 공식 난민촌이 위치해 있다. 유엔난민기구(UHCR)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통계(2022년 10월)에 의하면, 총 91,040명의 난민들이 태국 내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솟 인근의 난민촌에는 54,125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의 난민 수치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수치에 불과하다. 88혁명 이후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과 내



공식 국경을 넘나드는 미얀마인들

전, 경제적 궁핍이 지속되면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공식 인정된 난민의 수에 더해 농번기에 일자리를 찾아 간헐적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 오가는 사람들, 공식 난민촌 밖의 난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더하면 가능하기 힘든 수의 미얀마 인구가 매솟과 인근 지역에 거주한다.

한대 받지 못하는 자들

사실 태국 북부와 서부 지역 산간 지대에는 훨씬 더 많은 미얀마 출신 비공식 난민과 무국적자(약 48만 정도로 추정)의 수가 존재한다. 이 무국적자의 대부분은 태국과 미얀마의 암묵적 합의에 의해 탄생한 사람들이다. 3D 업종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던 태국과 상당한 규모의 송금 경제의 맛을 본 미얀마 정부 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태국 정부는 국내의 비주류 타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독특한 아이디카드(일종의 영주권 형태)를 발행하였는데, 첫 자리가 0번으로 시작하는 아이디카드(0번증)다. 0번증은 8+2의 형태로 최장 1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에 10년증이라고도 불린다. 0번증에 적힌 태국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등록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신분증'이다. 이 기이한 아이디카드를 소유한 자들은 대부분 미얀마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월경해 온 사람들이다. 특정 기간에 실시된 국적조회를 통해 10년 간 거주할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이

들은 각종 노동권 침해와 임금 차별, 무시와 멸시, 인권 탄압, 이동권 제한 등 일상적·제도적 차원에서 '배제의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얀마로 돌아가기보다는 매솟에서 차별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 차별과 멸시가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 가난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이중고, 코로나와 쿠데타

코로나19와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매솟과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가속화시켰다. 공식 국경은 폐쇄된 지 오래며, 비공식 월경 루트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강 하나만 건너면 국경을 건널 수 있는 다공성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고 있다. 내전이 한창인 미얀마보다는 매솟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현지 활동가들의 정보에 의하면, 2021년 11월 기준 매솟과 인근 지역으로 피난을 온 카렌족 피난민들(약 9천 명)과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 CDM) 활동가들(약 1천 명)의 수는 대략 1



불법월경의 루트이자 국경의 다공성을 잘 보여주는 사진; 강 하나만 건너면 국경을 건널 수 있다.

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 이후 현지 활동가들도 따로 통계를 언급하지 않는다. 실제 몇 배에 달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수많은 피난민들이 국경을 건너 비공식 난민 마을과 도심 곳곳에 숨어들었기 때문이다. 비공식 난민 마을은 피난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위협에 처한다. 마을 인구의 증가는 태국 국경수비대에 노출될 가능성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비공식 난민 마을 주민들은 동족인 카렌족 피난민들과 시민불복종운동 활동가들을 품어 안았다. 상호부조의 전통이 태국이라는 낯선 시공간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 더 극대화된 것이다.

10년 이상 태국-미얀마 국경지역의 미얀마 출신 타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동과 이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었고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 새로 이주해온 동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족이었다. 먼저 이주해온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까이 도움을 제공하였다. 현재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전염병)와 내전이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이들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상호부조를 실천하고 있다.

절망 속 희망을 꿈꾸는 자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들의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내전은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데 반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군부의 시민 탄압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 국경으로 피난 온 미얀마인들에게 태국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간간히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간섭도 지원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매솟과 한국에서 만난 미얀마인들은 당사자인 자신들의 힘으로 군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기필코 가져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국제 사회의 연대와 관심을 부탁하면서도 결국 이 역경은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다짐하였다.

필자 역시 '세 손가락' 경례와 함께 연대를 표한다. 더불어 이 역경이 너무 길지 않기를, 이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기를 바란다. 🙏

개인의 기억이 공동체의 기억으로

배은희 | 빨간집 대표

빨간집은 2018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민주주의사회연구소와 함께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전개되었던 ‘부산’의 촛불집회 사료 수집을 진행했고, 부산촛불아카이브(111archives.org)라는 웹 아카이브를 오픈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이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촛불집회가 부산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2000년대 이후의 ‘부산촛불집회 사료 수집’을 하기로 했고, 2020년에 예비조사 사업, 2021년과 2022년에 본격적인 사료 수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촛불집회는 다음과 같다.

연 도	내 용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촛불집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촛불집회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촉구 희망버스
2014년	세월호 사고 희생자 추모 및 진상 규명 촉구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2021년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료를 수집했다. 16개 단체와 5명의 개인을 만나 사료 요청과 면담을 진행하여 총 4,137건의 사료를 수집했다.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하고 많은 수의 기록물을 수집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오래된 촛불일수록 기록물을 찾기가 어렵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라는 촛불집회의 특성에 맞게 일반 시민의 기록을 찾는 것이 너무 막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2022년 초 자문회의에서는 촛불집회 대상의 범위가 넓으니 유실될 우려가 있는 가장 오래된 집회에 대한 사료 수집을 우선 진행하되, 사료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구술기록을 수집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는 마침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과 촛불집회(이하 여중생 촛불집회)가 일어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여서, 이와 관련한 구술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3명에 대한 12건(2인은 동시 인터뷰 진행)의 구술 기록을 수집했다. 지난해부터 만났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여중생 촛불집회가 처음 시민들이 주도로 나선 집회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으로



인터넷카페 활동을 했던 참가자들



여중생 촛불 연극 준비하는 청소년들



분향소

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고,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 우리는 '시민과 '청소년'의 실체가 궁금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계기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도 궁금했다. 다행히 이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먼저 만나게 된 이는 소영재 님(당시 시민사회단체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이었다. 여중생 사망 사건 직후부터 거리에 나왔던 소영재 님은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에 대해서는 근황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민 참여자 네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은 특정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게 되었으며,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며 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아주 열정적인 성격으로 이 작은 공동체의 맏언니 역할을 했고, 어느 한 여중생은 희생자와 비슷한 또래여서였는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하고 발언을 자주 했다고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보통의 대학생이었으나 여중생 촛불집회 이후 삶의 방향이 달라져 현재 진보성향의 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서면에 있던 맥도날드 불매운동에 대해서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어떤 이는 그 지점장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는 고민이 들기도 했었다. 공통적으로는 촛불집회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불렀던 소영재 님은 이들의 의지로 촛불집회가 짧게 끝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사진가 김효산



〈민주공원 사료관 아카이브 구축과 그 의미〉

11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04호에서 민주항쟁 기념 학술사업 <민주공원 사료관 아카이브 구축과 그 의미>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목적으로 학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제1발표를 맡은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설문원 교수는 “오늘날의 이태원 참사가 10년 뒤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는 지금의 기록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민주공원 아카이브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전문위원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제2발표로 조병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담당자가 ‘오픈아카이브와 민주주의 기록관’을 발표,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가 토론했습니다. 제3발표 배은희 빨간집 대표가 ‘촛불 사료 수집과정과 아카이브 전망’을 발표, 정경숙 완월기록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발표와 토론에서 못다 한 토론과 답변을 이어가고 청중의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공원 사료관(가칭)의 하드웨어적 구축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 구축을 밀도 있게 진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 민주주의사회연구소와 민주공원이 공동주관했습니다. 🇰🇷



‘나’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역사모꼬지

김도희 | 시민·회원사업

2022년에는 9. 9(금)~10.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30개 팀이 역사모꼬지를 다녀왔습니다. 104명의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들이 담긴 답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참가자의 후기를 신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다. 미리 간단히 조사를 한 바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집중도는 매우 높았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겪은 가슴 아픈 실상을 마주했으며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전시된 자료와 미디어를 보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다. 특히나 희생자의 성함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앞에서 아이들이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자신과 가족의 이름이 하나도 검색되지 않을 때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고, 이름이 몇 명씩 검색되어 나올 때는 굉장히 속상해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은 이미 희생자들이 남이 아닌, 나 자신, 내 가족과 일치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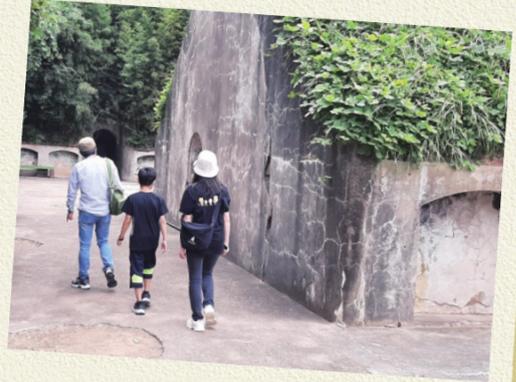
— 〈슈에밍송〉 답사기 중



기장 대항동 일대는 러일전쟁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무려 41년간 일본군의 군사 요새였다. 외양포 포진지를 먼저 둘러보고, 대항항 포진지 인공동굴 입구에서 또 다른 문화해설사 분을 만나 해설을 듣게 되었다. 인공동

굴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가족 중 아빠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면 엄마를 데려가고, 엄마가 일을 못하게 되면 또 아이까지 데리고 가 일을 시켰다고 한다. 군사시설이었고, 아픈 역사라서 예전에는 숨기고 싶어 이와 유사한 다른 곳은 모두 없었다던데 대항동 일대는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도 잘 보존하고 다크투어리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아픈 역사를 되돌리지 않게 교훈을 새겨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꿈꾸는 패밀리〉 답사기 중



평 상시에 자주 가톨릭센터 앞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6월 민주항쟁 표석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친구들과랑 표석을 조심스럽게 찾기 시작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은 역사의 흔적들에 관한 관심이라는 생각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민주화의 역사는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 표석을 보면서 민주화에 몸 바친 선배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되뇌이면서 민주화는 먼 시간 속의 먼 장소가 아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 〈한울장애인자활센터 체험활동반〉 답사기 중



민 주공원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친근한 공간이다. <늘 펼쳐보임방>에는 해방 이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등 사진과 함께 당시 사용했던 물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민주라는 단어는 어렵고, 나의 설명도 힘들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못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억압과 통제에 맞서 싸운 거야.”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모든 정보를 왜곡 없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이해하기에 아직은 조금은 어려운 눈치다. 조금 더 커서 이야기 나누면 그때는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 🐼

— 〈우리어디가〉 답사기 중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라는 기조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 가족 여러분과 시민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대면 행사를 개최하며 어린이날 하루에만 민주공원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주셨습니다. 5·18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부산 기념행사도 서면, 송상현광장 등 많은 시민이 오가는 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2022년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큰 변화가 있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문정수 제4대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고 이행봉 제5대 이사장과 김광호 부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를 일구어나가도록 힘쓰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



- ① 2022.01.04.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참배 및 시무식
- ② 2022.02.17.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2022년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임시이사회
- ③ 2022.04.28. 민주공원 들꽃자락 개소식
- ④ 2022.05.05. 어린이날 100주년 맞이 민주공원 놀이터
- ⑤ 2022.05.18. 5·18민중항쟁 42주년 기념식
- ⑥ 2022.06.10. 6월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추모의 벽 '늘빛드레' 제작식
- ⑦ 2022.06.10. 6월민주항쟁 35주년 부산기념식 & 시민문화제
- ⑧ 2022.11.17.~18.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워크숍
- ⑨ 2022.11.26.~27. 자원활동가 노근리 역사 기행
- ⑩ 2022.12.06.~07.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민주공원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계획수립 워크숍



2022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 임직원들은 11월 17일과 18일 <2022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워크숍>으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 네트워크 중 국내기관은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워크숍을 개최해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워크숍을 5·18기념재단의 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모였습니다.

이틀의 시간 동안 그간의 회포를 풀고 무등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무돌길도 걸었습니다. 담당 업무별로 만나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망월동 묘역에도 들러 우리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참배하는 시간도 가지고 토마스 앤드류스 UN 미안마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나 짧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2022 민주부산의 날

2022 민주부산의 날이 12월 1일(목) 오후 7시 서면 라온뷔페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부산의 날은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주관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 거리에서 희생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하여 2022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힘찬 활동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각 연대체의 추천을 받은 5명의 학생, 홍예리(부산민중연대), 서소담(부산여성단체연합), 김채은(부산시민연대), 강한별(부산공공성연대), 조한솔(6.15부산본부) 학생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계획수립 워크숍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부설기관 임직원은 12월 6일과 7일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22년 사업평가 및 23년 계획수립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월드카페 형식으로 각 단위별 사업을 평가하고, 게시판 토론을 통해 2023년 계획수립 등을 논의했습니다.



2022 부산민주인권페스타

2022 부산민주인권페스타가 12월 1일(목)부터 12월 11일(일)까지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주공원, 부산인권포럼, 부산민예총이 공동주최했습니다. 특별 전시 <사진으로 보는 부산 인권 문화>, 영화 상영회(<기억의 전쟁>, <뼈>),



〈당신의 사월〉), 초청 기획 공연 〈기억 여행〉, 〈쓰리보이즈 리턴즈〉, 인권 문화 한마당 특별공연 〈프로젝트 ‘어디에 핀들’〉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으로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공원 - 중앙도서관 간 연결 나무 데크 로드 개통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내·외부 시설 공사로 민주공원과 중앙도서관을 연결하는 양방향 나무 데크 로드(deck road)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주공원 쉬운길 입구 인근과 중앙도서관 지하 1층 식당 인근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새로 설치한 데크 로드는 민주공원과 중앙도서관 간 양방향 이동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민주공원과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길이 민주공원 초입에서 V자 형태로 갈라져 민주공원 이용자가 중앙도서관으로 이동, 또는 반대의 경우 300m 이상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데크 로드를 통해 길을 돌아가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데크 로드는 계단이 없이 경사로만으로 지어 교통약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원 측 출입구는 민주공원 내 쉬운길(무장애길) 입구 인근에 있어 민주공원 역내는 물론 민주항쟁기념관 내부까지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측 출입구 역시 지하 1층 식당 입구 인근에 있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도서관 내부를 다닐 수 있습니다.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 공모전 우수 및 어린이 작품 전시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중부소방서와 함께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 공모전 우수 및 어린이 작품 전시회〉를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1층 로비에서 11월 29일(화)부터 12월 2일(금)까지 열었습니다. 2022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활동 사진 공모전 우수작품과 불조심 작품(그림, 포스터) 입상작 30점을 전시했습니다.



반차별·평등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연말광고 캠페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2022년 12월을 ‘차별없이’, ‘평등하게’, ‘함께 살자’는 메시지로 시민들과 만나고, 공감하는 한 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 평균 이용객만 10만 명에 이르는 서면 지하철 환승역 전광판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텀블벅을 통해 광고비용을 모금합니다. 1만원씩 600명의 모금으로 “살자”는 외침의 절박함을 서면 지하철 환승역 전광판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살자’캠페인의 인증샷 혹은 이미지를 올리고 두 개의 해시 태그 (#살자_2023_차별없는세상에서,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를 모두 달아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25명에게 편의점 상품권 2만원을 드립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참여자 모두를 모아 랜덤으로 진행되어 세 곳 모두 게시하시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벤트 행사는 2022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SNS계정 쪽지 및 D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민주시민의 특별한 기부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 또는 민주공원 홈페이지(demopark.or.kr)에서 하실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시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회원사업 담당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 전화 : 051-790-7473
- ◆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1. 회원 감사증서 발송
2. 가입 후 3만원 상당의 가정용 반려나무 세트 택배 발송
3. 회원의 이름으로 숲 조성을 위한 활동 진행
4. 행사 및 교육 활동 우선 알림과 혜택
 - ▶ 〈민주달력〉, 뉴스레터 〈마루누리〉 발송
5. 소식지 무료 발송(연 4회)
6. 부산문화회관 전시와 공연 특별 할인가 혜택
7. 회원 간 교류 활동
 - ▶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8.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성찰과 전망』 36호 발간

민주주의사회연구소에서 『성찰과 전망』 36호를 발간과 함께 독자엽서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우리 사업회가 소장한 미술 작품 이미지를 활용하여 8장의 엽서를 만들었고, 여기에 독자엽서 1장을 더 만들어 한 묶음으로 포장해 발송하였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지면을 구성했지만, 두툼한 책 형식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평가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성찰과 전망』 36호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우리 연구소에 바라는 일이 있으면 엽서에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더 알차고 친근한 형식에 담아 보답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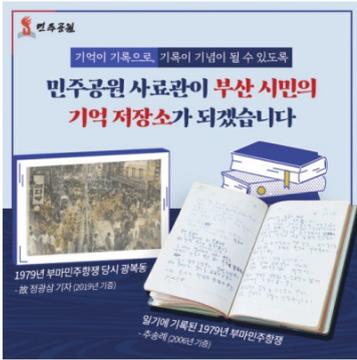
— 문의 www.narak.kr | ☎ 051) 463-2240



2022 교보교육대상 수상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교보교육재단(이사장 선종학)에서 시상하는 '2022 교보교육대상' 평생교육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내주시 회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비약해가는 나락한알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실행하고 콘텐츠 개발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민의제사전>을 격년 발간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시민성 교육 교재 <공존>을 발간했으며, 지역의 장소, 이야기, 역사를 담아 놓은 <부산 원도심은 페스티벌이다>, <걷다가 근대를 생각하다> 등을 발간했다. 또 부산 동구 지역에서 마을 교양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참여해 지역 친화적 교육 기획과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 시민의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나의 기억이 우리 모두의 기록으로! 2024년 민주공원 부속건물(사료관)이 문을 엽니다. 부산 시민의 기억 저장소가 될 민주공원 사료관 개관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의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기억이 기록으로, 기록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 051-790-7483



2022 부산민주공원 체험프로그램 마무리

2022년 민주공원에서 진행된 체험프로그램을 11월을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봄에는 민주공원에 대해 친숙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선착순 온라인 예약과 현장접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2022년 이야기

2022년 민주공원 활동가는 2022년 3월 조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8월 오프라인 조별 활동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다니며 부산의 민주화 관련 역사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4.19 혁명을 찾아 나서다> 영상 제작과 어린이날 행사, 제주 4.3 순회전 <동백이 피엄수다>의 도슨트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4.3 역사기행과, 노근리 역사 기행 활동도 함께하여 부산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공간의 역사를 익히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민주공원 자원활동가의 2022년 활동은 민주공원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푸른 잔디밭과 나무, 계절마다 꽃이 피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곳
 탁 트인 전망으로 부산 바다와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
 시민의 열린 공간, 민주공원입니다.



민주공원

사계절이 느껴지는

장승터, 들꽃나무뜰, 들꽃자드락

들꽃자드락

장승터

민주공원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전시실, 공연장

늘펼쳐보임방(상설전시실)

작은펼쳐보임방(기획전시실)

작은방(소극장)

큰방(중극장)

민주공원

부산 바다와 시내가 한눈에

전망대, 민주 의 횃불

민주 의 횃불

민주 의 횃불

바람마당(전망대)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 공간

시민의 열린 공간 민주공원입니다

민주공원

2022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발급안내

한 해동안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민주공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 알)회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의 회원정보 확인[민주공원 홈페이지⇒ 후원회원⇒ 나의회원정보 조회]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 수정된 회원정보로

- ①(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입금된 회비에 대해 회원 본인 명의로 발행됩니다.
- ②회원가입신청서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입력된 회원님에 한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조회와 출력

-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3년 1월 중순부터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본인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 동의를 받은 후 조회 가능합니다.

단, 만20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미성년자녀 자료조회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② 민주공원 홈페이지에서 출력[민주공원 홈페이지 ⇒ 후원회원 ⇒ 기부금영수증 ⇒ 휴대폰 또는 이메일 인증 로그인/아이디로그인]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본 기관에서는 별도의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4. 증빙서류(고유번호증)요청/ 영수증 직접 수령

·전화 : 051-790-7473

·이메일 : dohee@demopark.or.kr

